

# 나주 혁신도시 토목공사 본격화

1-1 공구 공정률 9%…묘지 75% 이상, 연내 모든 보상 마무리

한전 KPS와의 연수원 건립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물꼬가 트인 가운데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토목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토목공사가 발주한 1·1 공구 현장에 최근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 등 중장비들이 대

거 투입돼 공사가 진행되면서 9%의 토목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본격 이주가 예상되는 추석 명절 이후에는 광·매립과 함께 유실수 등이 제거돼 토목공사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의 묘지 이장률은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용 재결 상태로 연말이면 모든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과 종합병원 유치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한

국전력을 대상으로 가칭 '한전 자립고' 설립은 물론 종합병원과 단과대학 유치 등 꼽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관영 나주 혁신도시지원단장은 "5개월간 중단됐던 혁신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휴일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며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 조통 장군 기념비

## 곡성 약천서 제막식

곡성군 입장 약천리 출신으로 고려시대 한림학사를 지난 조통 장군의 기념비가 세워졌다.

곡성군 입장 약천리 청년회는 김학근 곡성문화원장과 정태신 광주대교수,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마을 '한립정'에서 '한립학사 조통의 비'(<사진>) 제막식을 가졌다.



## 월출산 자락 신나는 마당극 공연

지난 6일 월출산 천활 아영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탐방객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룬 '자연, 그 아우름'이란 주제로 마당극 공연이 펼쳐졌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달)는 올 가을 매주 한 차례씩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마당극을 공연할 예정이다.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강진 산간 마을 낙뢰공포 끝

## 군, 접지시설 생산업체와 자매결연 체결

## 3개 마을 110여가구 방지 시설 설치키로

강진의 산간 마을 주민들이 수년간 겪어온 낙뢰공포가 말끔히 사라지게 됐다.

강진군은 지난 5일 군청 회의실에서 낙뢰방지 접지시설 전문생산업체인 주그라운드(대표 우재숙)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성전면 오산, 명동, 당산 등 그동안 낙뢰로 큰 피해를 입었던 3개마을 110여가구에 피해 방지 시설이 설치된다. (주)그라운드는 최

근 피해가 가장 심했던 오산마을을 방문, 60여가구에 3천여만원 상당의 낙뢰 방지 접지 시설을 미쳤다.

나머지 피해 마을은 내년 상반기 등에 시설을 마치는 등 향후 10년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오산마을 등이 지역 주민 대다수는 지난 6~7월 낙뢰로 TV나 컴퓨터, 전화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마을회관 앱, 심지어 상수도 관정 변압기까지 타는 등 낙뢰피해를 입었다.

피해마을들은 안산, 매봉산, 수암산 등 해발 200여m 안팎의 3개 산이 감싸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지형적 원인에 불안정한 대기 등이 맞물리면서 낙뢰가 찾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그라운드사는 낙뢰로부터 각종 전자제품과 설비 등을 보호하는 접지장치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에는 땅을 파고 접지전극을 매설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친환경 3세대 디지털 접지장치를 개발하기도 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약천리 청년회가 지난 2006년 조통 장군을 기리기 위해 '한립정'을 세운 뒤 2년 만에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약천리 청년회 김태용 총무는 "건국 이래 단군을 시작으로 100대 인물의 한 사람인 조통 장군이 우리 마을 출신이라는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며 "앞으로 더 발굴 등을 위해 문화재청에 공식적인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 무안 – 광주(황산, 구화산) 무안 – 장새장가게 원가게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 광주 주차장 무료 이용

• 배민 최대의 편의도를 주는 광주 MBC문화항공 실불립니다(www.kyanha.co.kr)

"기존의 여기저기 사는가 하면 다릅니다"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무안공항 직항 – 광주(황산, 구화산) – 344,000~245,000~424,500~199,000

무안공항 직항 – 광주(황산, 구화산) – 344,000~245,000~424,500~199,000

무안 – 광주

무안 – 광주(황산, 구화산) – 344,000~245,000~424,500~199,000

무안 – 광주(황산, 구화산) – 344,000~245,000~424,500~199,000

다음, 내일의 광택을 위한 "광주MBC문화항공" – 출·착공사로 – 광주/전남 지역 여행 및 출장 관광

광주 MBC문화항공 광주/전남 북 유망여행사 ☎ 문의 062-226-6070

## 곡성 옥과농협 '다문화 여성대학' 문 열어

이주여성 27명 한국문화 등 교육

### '주부 모임'과 친정어머니 맷기도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이 전남지역 단위 농협 최초로 '다문화 여성대학'을 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나섰다.

옥과농협은 지난 5일 농협 2층 문화복지센터에서 다문화 여성대학 개강식을 갖고 오는 12월 11일까지 총 23회의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여성대학에는 옥과·오산·겸면에 사는 중국·베트남·일본·필리핀 등 다문화 이주여성 27명이 교육을 받게된다.

이들은 주 1~2회에 걸쳐 한글 및 전통예절 교육은 물론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가족간 정을 쌓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편 이날 개강식에서는 다문화 이주여성 27명과



관내 '고향주부모임' 회원 27명 사이에 친정어머니 맷기 행사(<사진>)도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날 결연을 맺은 어머니 이정님(61)씨와 딸 꼼부(베트남·22)씨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상철 조합장은 "여성대학과 친정어머니 맷기가 우리지역에서 살고있는 다문화 가정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면 더 바랄게 없다"고 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 전남도내 축산물 안전 '이상 無'

### 할인마트 등 유통 79건 조사 모두 적합 판정

전남도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8일 축산물을 앞두고 물류 이동 및 소비량이 많은 축산물에 대한 특별수거검사를 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4곳에서 생산되는 제품 51건과 목포, 순천을 포함한 8개 시·군의 할인마트에서 유통 중인 제품 28건 등 79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미생물검사와 함께 제품별 기준에 적합한 성분과 규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도축장 14곳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대상으로 병원성미생물인 대장균 O157 : H7, 리스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도내 유가공업체의 아이스크림, 밤죽유, 치즈 등을 대상으로 한 수거검사에서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도내에 유통 중인 축산제품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이에 따라 유통 성수기인 추석 축축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공휴일 개장, 도축검사시간 연장 등을 통해 원활한 축산물 공급을 돋기로 했다.

/체육총기자 chae@kwangju.co.kr

## 장흥군 재향군인회

### 6·25체험 산악행군

장흥군 재향군인회장 오재일·오재일·오재일(61)씨가 지난 5일 6·25 경전지인 유치면 가지산 서 6·25체험 산악

행군 및 안보포럼 강좌를 열었다.

장흥군 재향군인회는 10년전부터 6·25 체험 산악행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10회를 맞은 올해는 참전 유공자 300여명을 초청해 의용학생 데모·참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오재일 재향군인회장은 "6·25 바로 알리기 캠페인 및 안보강좌를 통해 장흥 가지산을 호국성지로 꾸며 전후세대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 전회원이 총력을 기울여자"고 강조했다.

/장흥=김용기자 kykim@

## 화순읍 재래시장 새 단장

### 내년까지 40억원 들여 현대화 사업

화순군 화순읍 재래시장이 새롭게 바뀐다.

화순군은 올해 삼천리 재래시장의 첨개된 상권 활성화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40억원을 들여 시장 시설 등 주변 환경을 전면개선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벌인다.

경을 전면개선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벌인다.

이에따라 내년까지 기존의 낡은 장터의 모두 철거돼 새 장터로 교체되고 간단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이벤트장도 세워진다.

또 한약초 판매장과 푸성귀 코

너, 한우매장 등도 설치된다.

이벤트장 설치는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도시민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약초 판매장 신설은 전국적으로도 알려진 화순 약초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전략이다. 화순군은 앞으로 광주~화순간 지하철 연결, 광주~화순간 국도 확장, 전남대 의대의 화순 이전 등이 끝날 경우 시너지 효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